

사드 불똥 지사체까지...對中 교류 연기·스톱

중국측 요청 이낙연 전남지사 쓰촨성·충칭시 회담 무산 자매결연 체결 계획 산시성 성장 전남 방문도 돌연 취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로 이낙연 전남지사의 방중이 연기됐다. 관광객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친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비상이 걸리게 됐다. 전남도는 28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했던 중국 쓰촨성(四川省)과 충칭(重慶)시 방문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방문을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갑작스러운 결정이다. 전남도는 “최근 전

남도와 중국 당국 사이에 조성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사드 배치의 영향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지사는 애초 방문 이틀 차인 30일 인리(伊力) 쓰촨성장과 회담하기로 양측 실무 협의를 했으나, 쓰촨성 측이 일정을 3일 앞둔 지난 26일 성장 일정을 이유로 부성장과의 회담을 요청했다. 거기에 지난 4월부터 이미 31일 만나기로 협의를 진행하

던 충칭시 황치만(黃奇帆) 시장과의 일정에 대해 충칭시 측이 지난 8일 “중양행사 일정과 겹친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2개 일정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중국과 관련된 다른 행사와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전남도와의 우호협력관계 격상을 추진해온 산시성(山西省)의 리사오펑(李少鵬) 성장도 지난 22일 전남을 방문해 자매결연 체결을 하기로 했으나 지난 달 26일 ‘당서기 인사이동에 따른 해외출장 제한’을 이유로 방문 취소를 알려졌다. 장시성(江西省)은 지난해 상호 합의에 따라 오는 9월께 전남에서 ‘장시성 주간행

사’를 열고자 지난 3월부터 실무준비단을 보내 사전조사까지 했으나 지난 12일 ‘고위급 인사이동과 수해복구’를 이유로 전남도에 행사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이 지사는 “한국의 사드 배치 같은 국가차원의 현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전남도가 겪은 일련의 과정은 몹시 유감스럽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의 방문이 서로에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쓰촨성 청두(成都)에서 30일과 31일에 열도록 준비해온 에너지밸리 투자설명회와 관광설명회는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감사원, 공공기관·자치단체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올연말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최근 공직자가 연루된 뇌물비리, 막말 파문, 성범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우선 1단계로 다음달부터 ‘추석 전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시 복귀검문과 감찰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나 감사정보센터 등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특히 공직비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2단계로 주요 취약 분야에 대한 공직비리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청년, 거리의 주인이 되다 ‘청년의 거리’ 행사가 지난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청년들이 거리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이 행사는 건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연무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54명 평균 재산 34억...김병관 빼면 19억

50억 이상 재력가 12명 광주·전남 8명 평균 8억 정인화 14억원으로 최고

20대 국회에서 신규로 재산등록한 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34억2199만6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341억2050만2000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19억1408만4000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54명의 재

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번 재산 신고대상은 초선 의원뿐 아니라 제19대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었던 재선 이상, 또 19대 국회에 재직했다더라도 중간에 사퇴했다 다시 당선된 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평균 52억5040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26억5824만3000원 ▲국민의당 14억7338만1000원 ▲정의당 3억8461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재산 평균액이 16억1735만8000원으로, 크게 떨어진다. 지난 19대 국회 때는 신규등록 의원 183

명의 재산 평균액이 약 15억원, 제18대 국회(161명)는 약 32억원이었다. 신고재산이 50억원 이상의 재력가는 12명(7.8%)이었으며, 20억~50억원 27명(17.5%), 10억~20억원 37명(24.0%), 5억~10억원 34명(22.1%), 5억 미만 44명(28.6%) 등으로 나타났다. 신규등록 의원 가운데 4명 중 1명(39명·25.3%)은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셈이다. 최고 자산가로 등극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에 이어 ‘박정 어학원’을 운영했던 더민주 박정 의원(237억9138만4000원)과 고(故) 성안중전 건립사업 회의장 동생인 새누리당 성일중 의원(212억4862만7000원),

법조인 출신인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195억7203만5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전남에서는 신규 등록된 초선 국회의원 8명의 평균 재산은 8억 593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의 재산이 14억488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2억1268만원, 같은 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0억6959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울)은 가장 적은 2억259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대당 22명 탑승...작년보다 70% 늘어

전남도가 3년째 운영중인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의 평균 탑승 인원이 올해 큰 폭으로 늘었다. 매년 대당 20명 이상이 버스에 올라 전남 관광에 나서고 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22개 시·군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남도한바퀴 14개 노선을 운영한 결과 8월 현재 580회를 운행, 1만2942명이 탑승했다. 버스 1대 당 22명이 넘게 탄 셈이다. 이는 지난해 평균 탑승인원 13명(1024대 1만3623명)과 비교해 70% 가량 증가한 규모다. 운행 노선 가운데 여수 금오도 비렁길을 탐방하는 여수 5코스 이용객이 1회 평균 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수영관광단지, 운림산방 등으로 구성된 진도 6코스 37명, 해남 운선도유적지, 완도 수목원, 강진 남미륵사 등을 관광하는

광주 4코스 36명 순이었다. 이처럼 탑승객이 늘어난 것은 9900원의 저렴한 가격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로 전남의 주요 관광지 5~7곳을 당일 코스로 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전남도는 풀이하고 있다. 또 광주송정역과 광주, 목포, 광양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외지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남도한바퀴’의 예매 및 노선 안내는 남도한바퀴 누리집(<http://citytour.jeonnam.go.kr>), 소셜커머스(쿠방, 티몬, 위메프), 온라인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G9, 11번가 등), 금호고속 전용 상담센터(062-360-8502)에서 가능하며, 잔여 좌석이 있는 경우 광주·목포버스 터미널에서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군공항 이전·무안공항 활성화 모색 광주전남연구원 30일 연구원 상생마루서 토론회

광주군공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는 30일 오후 광주전남연구원 주최로 열린다. 최근 광주군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국방부의 적정 판정 등 지역 공항문제의 매듭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지역 내 공항대 형성을 위한 자리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8일 “오는 30일 오후 2시 연구원 상생마루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광주 군공항 및 국내선 이전방안’을 주제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략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제1차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제기된 광주 군공항의 이전 및 국내선 이전 방법론과 이전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무안국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광주 군공항 및 광주 공항 국내선 이전방안 등을 보편타당한 논리에 접근함으로써 해법을 모색한다. 종합토론회에는 유광의 한국항공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강원주 한국문화교류회장, 김민중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양승주 목포대 교수, 정영덕 전남도의회 안전행경환경위위원장, 최동호 광주대 교수, 송영중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신수정 광주 북구의회 부의장 더민주 전국 기초의원협 초대회장 당선

광주 북구의회는 신수정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기초의원협의회 초대 회장에 당선됐다고 28일 밝혔다. 신 부의장은 지난 24~25일 더민주 소속 기초의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더민주 전국 기초의원협의회회장’ ARS 전화투표 결과, 205표(26.2%)를 얻어 2위인 서울의 정형진 후보를 16표 차로

앞섰다. 신 회장은 중앙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 중 하나인 당무위원도 겸하게 된다. 신 회장은 “더민주 소속 전국 기초의원들과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호-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하는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전남지역 어디든 무료출장

"불만족 100% 환불"

"울리지 않고 잡음 없이 깨끗한 소리 착한 보청기"

출장문의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